

김남훈

변호사시험대비 Step 1

강의계획서

변호사

민법

단권화정리

- 민법의 모든 출제예상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완벽하게 학습
-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
- 키워드 중심의 간결한 답안작성을 위한 판례와 이론의 핵심내용 요약정리
- 민사소송법 · 상법 및 민사실무과목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는 쟁점까지 강의
- 핵심암기장을 통한 사례풀이 연습 및 답안작성을 위한 키워드 암기
- 주 1회 이상의 1:1 대면첨삭 및 Q&A를 통한 과외식 보충학습

일 정

2016. 5. 2(월) ~ 5. 19(목), 총 26 회, 월~금, 오전 · 오후

오전강의 오전 8시 40분 ~ 12시 10분

오후강의 오후 1시 40분 ~ 5시 10분

※ 5/6(금), 13(금), 20(금) 복습용 모의고사 진행
오후 2시 ~ 4시 (선택형 1시간, 사례형 1시간)

교 재

- Essential 민법(저자, 제3판, 근간)
-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저자, 제공)

수 강 특 전

※ 민법 단권화강의(5/2) 실강수강생 특전

1. Practice 민사기록형 암기장(저자, 제3판) 무료제공
2. 친족상속법 강의(8월 예정) 무료수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단권화강의 실강수강생 특전

-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사례연구 동영상강의(2015. 1) 및 교재 무료제공

무 료 특 강

민사법 기록형 형식적 기재사항 **무료특강** (도표로 정리하는 요건사실론 포함)

일정 : 4월 26일(화) ~ 4월 28(목)

시간 : 오후 2시 ~ 5시

교재 : PRACTICE 민사기록형 암기장(제3판)

※ 단권화 민법 실강수강생은 교재 **무료제공**

F A Q
Q1. 변호사시험에서 민법의 출제경향은 어떠한가요?

A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 위주로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한편 이제는 민법과 민소법의 통합문제 뿐만이 아니라, 상법까지 연결된 문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알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익의 소, 제3자의 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와 가처분 등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쟁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판례가 아직 판시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풀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가 있는 사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경향도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i) 선택형에서는 ‘가능하다’를 ‘불가능하다’의 식으로 판결요지를 변형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식은 줄어들고 있고, 설문이 긴 사례형 및 계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들 위주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여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심화된 지문과 판례를 응용한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ii)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가 문제로 변형된 후에 당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설문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F A Q

Q2. 작년에 보던 교재가 있는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 교재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A2. 작년에 보던 교재(이하 '각자 기본서'라고 합니다)가 눈에 많이 익었고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1순환에서 '각자 기본서'를 중심으로 예습을 하고, 'Essential 민법'은 강의안으로 활용하면서 '각자 기본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만을 표시하여 복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2순환(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그 방식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1순환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실질적 단권화가 될 것입니다. 마땅한 기본서가 없는 분들은 개정판의 내용을 많이 보강하였기 때문에, 'Essential 민법'만으로 학습하셔도 충분합니다.

-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과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이후에 출간될 예정인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추록'만으로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추록은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기존 암기장 방식과 동일하게 압축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Q3. 하루에 2회나 강의를 수강하면 복습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A3. 2순환 진도별모의고사 전까지 전 과목 1회독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15회 정도로는 민법에 대한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에 2회의 강의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복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에 수동적으로 강의만 수강하고 복습을 저녁으로 머루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 강사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수강을 해야 합니다. 즉 귀로는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교재를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복습시간에는 강의시간에 설명된 판례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가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경우에 답안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현출해야 하는 것인지를 답안지에 실전 답안처럼 써보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즉 쓰면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의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기간에는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만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 A Q

Q4. 1순환 단권화 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A4.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민법의 모든 쟁점과 판례를 ‘Essential 민법’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불문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것은 판례의 법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렇게 정리한 판례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회 시험의 선택형에서 출제되었던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판례가 제4회와 제5회 시험에서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학습이 단순히 선택형만을 위한 공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판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례문제 또는 기록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철저하게 이해하여 판례를 통하여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높아진 난이도에 대비하여 고득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는 민사재판실무나 로클릭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판례 및 사법연수원 시험문제가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의 실무과목에서 필요한 내용도 정리할 것입니다. 특히 ‘Essential 민법(제3판)’에는 ‘요건사실론’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고, 민사기록과 민사실무II 등의 중요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사법연수원 교재들을 학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을 통하여 판례의 법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례문제로 출제되는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의할 것입니다.
- 그리고 대형 강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일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대면참석 및 Q&A를 통한 과외식 보충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고득점 답안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체득하고, 각자 기본서에 서술된 내용과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면참석 시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 가입에 대하여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F A Q

Q5. 모의시험을 별도로 금요일 오후에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수험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답안지에 적힌 내용뿐이므로,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현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에는 강의 시작 전에 1시간 동안 시험을 본 후에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에너지 소비가 심해서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그 주에 학습한 내용 중에서 선택형 1시간(문항수는 추후 공지예정)과 사례형 1시간(100점 분량)의 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험은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Q6. 금딱지라는 자료와 민사재판실무 사례자료를 구입하여 학습해야 하는지요?

A6. 금딱지라는 자료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에서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사례연구 문제와 수시평가 문제들을 복사집에서 워드작업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연수원생 시절에는 그 교재의 표지가 두꺼운 금속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부터 연수생들이 ‘금딱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오탈자도 많이 있고, 변경된 판례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연수원 교수님들도 그 교재 내용대로 학습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연수생들도 스터디를 통하여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 제가 2007년 12월에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법연수원 문제들이 사법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수생시절에 정리하였던 기존의 자료에 최신 연수원 자료를 보충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 강의교재인 ‘FOUETTE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라는 교재를 보시면 별도로 ‘금딱지’라는 자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교재에는 ‘금딱지’에 포함된 내용, 그 이상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사법연수원 자료 및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자료도 제가 수집하여 강의 내용과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등에 전부 반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별도로 민사재판실무 자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F A Q

Q7. 1순환 강의 이후에 2순환 강의와 3순환 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A7. 2순환은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2017년 대비 신작문제 위주의 선택형·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및 해설강의와, FOUETTE 민사법종합사례연습(제4판, 출간예정)에 수록된 사례에 대한 해설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2순환은 선택형과 사례형에 대한 문제풀이 실전연습 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3순환은 마무리 강의인데,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및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추록'으로 출제 가능한 쟁점에 대한 핵심정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1순환과 2순환에서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시험장에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수강생 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단권화 강의 때부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볼 책은 처음부터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Q8. 출제예상 쟁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그동안의 적중률은 어떠한가요?

Q8. 제1회 시험부터 제5회 시험에 이르기 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은 모두 제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매년 출제된 시험 문제 중에서 90% 이상 적중할 수 있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는 최근 10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재와 기록 및 사법연수원 강의 내용과 시험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의를 진행하면서 준비한 자료들을 기초로 매년 출제경향에 대비하고 있는 유일한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실무 강의(사법연수원 강의와 유사합니다)와 로클릭 시험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2016년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로는 민사법과 관련된 학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세미나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사법과 관련된 다수의 학회에서 매년 중요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교수님들과 실무가님들이 현직 출제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 세미나에서 쟁점이 된 주제들 중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학기부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실무가 교수진의 자격으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앞으로의 시험에서 더 높은 적중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F A Q

Q9. 수강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요?

A9. 며칠 전 발표가 난 후에 합격하신 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 저는 2000년에 1차를 합격한 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005년에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때마다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좌절도 많이 했고, 저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 같아서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직업에 대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 주제를 넘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부 체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015년 12월 마무리 강의가 끝난 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누가 이미 계산을 하셨다고 하면서 메모지 한 장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김남훈 변호사님의 강의 덕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읽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제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격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단권화정리**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간	과목	강 의 내 용
1	5.2(월)	오전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2		오후		채무불이행,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3	3(화)	오전		채권자대위권
4		오후		채권자취소권
5	4(수)	오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		오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	5(목)	오전		채권의 소멸
8		오후	채권각론	계약총론
9	6(금)	오전		증여, 매매, 교환
		오후	선택형 및 사례형 모의시험 (채권총론)	
10	9(월)	오전	채권각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11		오후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화해
12	10(화)	오전		사무관리, 부당이득
13		오후		불법행위
14	11(수)	오전	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등기총론
15		오후		부동산등기각론, 동산물권변동, 물권의 소멸
16	12(목)	오전		점유권
17		오후		소유권1(취득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8	13(금)	오전		소유권2(공동소유, 명의신탁)
		오후	선택형 및 사례형 모의시험 (채권각론)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민법 단권화정리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간	과목	강 의 내 용
19	16(월)	오전	물 권 법	용익물권
20		오후		담보물권
21	17(화)	오전	민 법 총 칙	법원, 자연인, 법인
22		오후		비법인사단과 재단,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23	18(수)	오전		의사표시
24		오후		유권대리, 표현대리
25	19(목)	오전		협약의 무권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26		오후		소멸시효
	20(금)	오후	선택형 및 사례형 모의시험 (물권법·민법총칙)	